발간사 (이부영) 11
영원한 승리자 (김대중) 15
몽양 선생과의 인연 (이수성) 18
분단극복의 실현 (백낙청) 22
여운형의 이상과 선택 – 냉전의 희생양 (이정식) 25
몽양의 사상과 행동 (최상용) 54
6.15시대와 몽양 (조영건) 82
몽양노선의 계승과 변용 (남재희) 120
몽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박세일) 125
몽양의 공로 (서중석) 133
몽양 암살범에 대한 질문 (김병태) 140
몽양 선생 서거 60주기 기념강연 (정경모) 143
이 시기에 왜 몽양인가 (이부영) 162

〈부록〉 (여운형 선생의 글 모음)

제1부 해방전

자서전(1) 170
자서전(2) 176
자서전(3) 179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편지) ····· 182
조선독립의 당위성(대담1) ····· 189
조선독립의 당위성(대담2) ····· 195
일본 고관들과의 대담 ····· 204
기자회견 ····· 207
동경 제국호텔 연설(요지) ····· 208
몽양 환영연에서 ····· 212
우리 독립운동의 과거 현재 및 장래(연설) ····· 214
나의 회상 (여행기1) ····· 220
몽고사막 횡단기 (여행기2) ····· 229
적색구인도시(赤色區人都市)고륜(여행기3) ····· 241
모스크바의 인상(여행기4) ····· 254
시베리아(西伯利亞)를 거쳐서(여행기5) ····· 270
설산 장덕수에게 (편지) ····· 283
국민당대회에서의 연설(수필) ····· 286
마닐라의 젊은 여성 ····· 288
압송중의 기자회견 ····· 294
수감중의 인터뷰 (신문기사) ····· 295
홍구에게 (옥중서신 1) ····· 296
아내에게 (옥중서신 2) ····· 297
아우에게 (옥중서신 3) ····· 298
이 밤도 네 생각에 (한시) ····· 299
대전감옥에서(大田獄中吟)(한시) ····· 300
여운형의 옥중기 ····· 301
옥중서한 ····· 307
출옥 당일의 인터뷰(신문기사) ····· 309
조선중앙일보 사장 취임사 ····· 311
동상건립 기념사 (연설) ····· 313
평양축구단을 천진원정에 보내며(연설) ····· 315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용사여!(연설) ····· 322
노구교사건에 대하여 ····· 326
갈 곳 없는 나그네 (한시) ····· 328

제2부 해방후

해방의 날은 왔다 (연설) ····· 330
건준위원장 담화 ····· 332
건국준비위원회 연설 ····· 334
하지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 ····· 337
신조선 건설의 대도(大道) (시론) ····· 339
나의 정견 (연설) ····· 343
인민당의 신념 ····· 350
통일전선에 낙관 (기자회견) ····· 356
전국문학자대회 축사 ····· 359
탈퇴 통고문 ····· 365
민전의장으로서의 연설 ····· 367
미소공위에 관한 담화 ····· 373
정국과 우리의 임무 ····· 375
미소공위의 재개촉구(담화문) ····· 379
통일공작에 대한 관점 ····· 381
황야의 탄식 (영시) ····· 384
합작노선을 절대지지 (성명서) ····· 385
미소공위 속개 요청 성명서 ····· 387
건국과업에 대한 사견 (시론) ····· 388
정계은퇴 성명서 ····· 397
미소공위재개 촉구 (성명서) ····· 400
근로인민당(가칭)중앙준비위 구성경위 ····· 401
독선주의 배제 ····· 405
근로인민당 창당 개회사 (요지) ····· 406
미소공위에게 보내는 메시지 ····· 407
공위는 성공한다 ····· 409
마지막 편지 ····· 410